

朴鍾哲군사건관련資料集

- 1 金壽煥추기경의 朴鍾哲군 추도미사 강론
- 2 한신대 教授團 견해문
- 3 辯協 「고문대책공청회」의 拷問피해증언
- 4 제132회 임시国会 本會議 속기록
- 5 제132회 임시国会 內務委 속기록

우편요금 수락인(우)납부안
유효기간 1986.12.1 ~ 1988.11.30
광화문우체국승인 제426호

우 편 연 서

서울 광화문우체국 사서함414호

朝鮮日報

朝鮮日報社 출판관리부
月刊 半月刊 月刊 山 加 正 朝鮮

1000-0000

이다.

(1년분)

月刊 山	月刊 半月刊	月刊 加 正 朝鮮
72,000	72,000	93,600
81,600	81,600	110,400
95,400	95,400	140,400
102,000	102,000	154,800
57,840	57,840	67,440
63,840	63,840	75,960

대한 근역업

INC 7WEST 12nd
01
35-6674

KOREA BOOK CENTER
LOS ANGELES
82

대정호 1가 61
관리부 755-2990

제수 27-2492

발행처 **朝鮮日報社**
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1가 61우편번호1000
전화·대표전화 735 6611-739 0201

발행인 申東漢
편집인 김안
출판국장 安鍾奎

1980년 1월 15일 발행물 78호
1987년 3월 號
값 3,500원

月刊 朝鮮

社 會 長 方 又 榮
長 方 一 榮

本誌(一)圖書·雜誌倫理委員會의 圖書·雜誌倫理實踐要綱을 遵守한다
印刷所 東亞印刷工業株式會社
서울특별시 구로구 독산1동 00055의 15

※無斷轉載나 複寫를 禁한다.

金壽煥 추기경의 朴鍾哲군 추도미사 강론

친애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지난 1월 14일 하늘마저 노할 경찰의 포악한 고문으로 숨진 서울 대학생과 박종철군의 참혹한 죽음을 애도해 하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숫구쳐 오르든 의분 속에 온 나라의 모든 이들이 눈물을 흘리며 할 말을 잊고 하늘만 바라보고 있는 이제, 오늘날입니다.

민주국가, 법치국가, 정의사회라는 대한민국 안에서 백주에 한 젊은이가 경찰에 연행된지 수 시간 후 시체로 변했다는 이 어처구니 없는 사건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야 하는 오늘날의 우리

가 다듬고 각자가 처해있는 위치에서 과거에 대한 뼈아픈 반성과 앞으로의 나아갈 길을 생각해 봐야 하겠습니다.

제1독서에서는 야훼 하느님께서 동생 아벨을 죽인 카인에게 '네 아우 아벨은 어디 있느냐?' 하고 물으시니, 카인은 '제가 아우를 지키는 사람입니까?' 하고 잡아떼며 모른다고 대답합니다. 창세기의 이 물음이 오늘날 우리에게 던져지고 있습니다. 지금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네 아들, 내 제자, 내 젊은이, 내 국민의 한 사람인 박종철은 어디 있느냐?'

그리고 책상을 치자'와 '하고 쓰러졌으니 나는 모릅니다' 수사관들의 위

까지 것 가지고 뭘 그러십니까?' 국가를 위해 일을 하다 실수로 희생될 수도 있는 것이 아니요?' 그것은 고문 경찰관 두 사람이 한 일이니 우리는 모른다는 일입니다. 라고 하면서 잡아떼고 있습니다. 바로 카인의 대답입니다.

그러나 제2독서의 말씀과 같이 우리 모두는 성령의 힘에 의해서 하나로 묶여 있으며, 같은 하느님의 피조물이요, 한 아버지의 자녀이기 때문에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런 신앙을 떠나서라도 우리는 박종철군과 한 거룩한 핏줄입니다. 위정자도 국민도, 요양도, 양도, 부모도, 교사도, 종교인도 모두 한 젊은이의 참혹한 죽음을 함께 무릎을 꿇고 가슴을 치며

요한 복음에서는 숨을 거두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한 젊은이의 의욕한 죽음 앞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을 연상합니다. 예수님의 처참한 죽음이 회열의 찬 부활과 새로운 생명의 세계를 여는 약속임을 알기에, 참혹한 한 젊은이의 죽음에서 희망의 내일을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고 박종철군의 죽음을 애도하는 친구들의 조사 마지막 구절처럼, '이제까지 부끄럽게 살아 온 우리가 그의 죽음앞에 새롭게 태어나 그가 못 다 이룬 일을 뒤에 남은 우리가 이룬다면', 그의 죽음은 결코 헛되지 않으리라 확신합니다. 때문에 그의 죽음에서 희망의 내일을 내다 볼 수도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성전에서 근본적으로 박종철군의 죽음에 책임이 있는 이 정권에 대해 우선 하고 싶은 한마디 말은 '하느님의 두렵지도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번 박종철군의 참혹한 죽음은 우연한 돌발적 사고가 아닌 것입니다. 이번 고문 사건은 지난해 6월에 있었던 천안공노할 부천 경찰서 권양의 성

고문 사건과 역시 지난 9월 4일 연안 단 지면연 의장 김근태씨에 대한 경찰의 잔혹한 고문사건, 이 밖의 연속적으로 일어난 수많은 고문 사례들 중의 하나이며, 다른 한편으로 해아리기 힘들게 많은 수의 양심인들의 감옥에서 고문을 당하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발생한 것이라 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를 뒤덮고 있는 지속적인 불의의 사태는 극도로 악화된 단계로 보입니다. 그 실증을 우리는 헌정권이 자신을 반대하는 모든 사람을 힘으로 다스리고, 또 그 중 상당수를 공산주의자들에게 적용하는 국가보안법으로 처벌하는 극심한 인권 침해 실태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바로 지난 해인 1986년 한 해의 우리 사회 현실에 드러난 대표적 양상은 한 마디로 '대대적 구속 사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정치적 이유로 구속된 사람의 수는 2천4백여명이 넘는 데, 이것은 그보다 앞선 5년 동안에 걸쳐 구속된 양심수 약 1천2백명에 비해 2배가 넘는 숫자라고 합니다. (한 국민일보 86.12.13). 이 중에서 단일 사건

으로 전국대 동성 사택에서 구속된 학생 수만 해도 1천2백87명에 달하는데, 구속 단계에서 이들에게는 '학생'이라는 호칭도 안 쓰고 이른바 '공산혁명분자'라는 호칭을 썼습니다. 그리고 나서 기소 단계에서 이들 중 약 70%의 학생들을 다시 석방하였습니다. 이와같은 일련의 무책임하고 대대적인 인권침해 사례는 대한민국 사법사상 유례가 없는 사태라고 합니다.

오늘의 젊은 학생들은 누가 무어라 해도 떨지 않아 우리 사회를 짊어질 하나의 역사적 세대인 것입니다. 또 일상생활의 구체성 안에서 보면 우리 사회 각 가정의 귀한 아들 딸들입니다.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를 사랑으로 포용하지 않고, '너는 내 자식도 아니고 학생도 아니고 나쁜 공산 혁명 분자니까 집에서 나가 감옥에나 가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렇게 한다면 이 나라의 내일은 어찌 되었습니까? 어떻게 이처럼 무책임하고 비인간적인 일을 저지할 수 있습니까? 또 이들 중 감옥에 못 집어넣거나 안 집어넣고 풀어준 그 70%의 학생들이 저항감이 마음의 상처를 회복

하고 고분고분하게 사회와 가정에 복귀 할 수 있다고 보지 않습니까?

오늘날 우리 사회에 좌경 학생 내지 공산 혁명 분자가 늘어나고 있다고 정부와 여당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야 민주 세력 쪽에서는 이를 '고문 및 용공 조작'의 결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공산주의'는 한 이 데올로기로서의 성명을 가지고 있지 못한 실정입니다. 또한 그리스도교 교회도 전통적으로 공산주의에 내포된 물질주의, 전체주의, 폭력의 번증법을 부정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의 제3세계 지역에서 군 부 독재에 반발하는 결과로 좌익 세력이 자생하는 현상에 대해서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들 독재 정권들은 명분으로는 '자유 민주주의'를 표방하면서 실제로는 일당 독재와 독점 자본에 의한 심각한 빈부격차, 인권유린 현상을 빚어냅니다. 그리고 이 현상이 바로 공산주의의 온상이 됩니다.

우리 나라에서도 제3공화국 이래 양심적 민주 세력과 젊은 세대에 의해 「독재」와 「파쇼」로 지적되고 저항받는 정권 담당자들이 명분상 표방하는 것은

고 있습니다. 정부 쪽에서는 「고문 및 지 특별기구 신설」을 내놓았고, 여당 쪽에서는 개헌안에 「기본권 관련 수정 보완안」을 내놓았읍니다.

이제까지 고문 금지의 범조문이나 재 기구가 없어서 고문이 자행된 것은 아닙니다. 대한민국 헌법에는 어떠한 법적 제재도 인간 기본권을 침해할 수 없다는 전제가 있어 왔으며, 헌법 제11 조는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 형법 124조에는 불법체포, 불법감금 등을 엄히 금하고 있고, 125조에는 경찰과 검찰에 의한 폭행과 가혹

「자유 민주주의의 수호와 발전」이었읍니다. 헌정권도 마찬가지로 기회있을 때마다 인필칭 「자유 민주주의의 수호와 발전」을 자신들의 지상 과제처럼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법 연행과 불법 체포, 감금 및 고문 등 인권 유린의 수 없이 바로 인권을 수호해야 할 공권력에 의해 자행되고 있습니다. 거기가 농어민, 노동자와 도시빈민들이 이 정권에 의해서 푸대접 또는 버림까지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심이 오염되지 않은 젊은 세대에게는 「자유 민주주의 체제」라는 것은 이렇게 나쁘고, 구제불능이고, 독재와 빈부격차를 해소할 수 없는 반민중적, 반역사적 제도로 인식되어 이에 반발하고 나서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대 세계에서 진정한 진정으로 자유 민주주의를 운영하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서구의 불란서나 이태리 또 우리처럼 분단되었지만 민주주의를 지킴으로 국가 안보를 오히려 튼튼하게 하는 서독이 그러합니다.

그러한 나라에서는 공산당이 합법화 되어 있어도 자유 민주주의 또는 민주

정부를 엄히 금하고 있습니다. 124 조 위반시에는 7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125 조 위반시에는 5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밖에 연행에 따르는 영장, 구금에 따르는 변호사의 주각적 간여 조건들이 범조문으로는 모두 구비되어 있습니다. 특히 83년 12월 31일부터 시행된 이른바 고문방지 특기법에 따르면 「인신 구속에 관한 죄무를 행하는 자가 피의자에게 폭행 또는 가혹 행위를 해서 치상, 치사케 한 경우 최고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는 규정도 있습니다.

이렇게 경찰이나 검찰의 법집행 남용

사회주의 정당이 견고하게 정권을 유지하고 있으며, 자체 내에 발생하는 일부 모순을 자율적으로 시정하는 기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인 3권 분립체제가 확립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체도는 우리 교회로서도 인간 본성에 합치하는 제도로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요한 23세 교황, 지상의 평화 48).

이렇게 볼 때 우리 나라에서의 근본 문제는 3권 분립이 이름뿐이고, 현실적으로는 행정부의 시너처럼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우리 나라가 참으로 민주화가 되려면 이 3권분립을 명실상부하게 원칙대로 시행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법률을 만든다 하더라도 인간 기본법을 지킬 수 없고, 정치 사회의 안정과 발전을 이룰 수 없습니다. 그 한 예를 우리는 이번 박종철군의 고문 치사 사건을 통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

이번 박종철군의 비통한 죽음이 국민 대중에게 감정을 수 없는 충격과 울분을 낳자, 정부와 여당에서는 「고문 재발 방지」를 위한 몇가지 방안을 제시하

고문방지 인권을 중요하는 의무 규정의 임인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권 보호를 위해 사법부에 주어진 권한도 이에 못지 않습니다. 우선 형사 소송법 260 조에는 재정신청을 규정하여, 「수사기관의 불법 행위에 대한 이의 절차」를 두고 있습니다.

또 고문, 폭행, 협박, 부당한 장기 구속 등의 방법으로 강요된 피의자의 진술은 그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규정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문에 의한 자백도 법원에서 공안 사건의 경우 거의 다 채택됨으로써 그 규정이 지켜지지 않았고, 재정 신청의 경우에는 지난 73년 이 조항이 개정된 이후 14년 동안 유신 체제를 거쳐 오면서



간장 건강을 위한 새로운 정보!

해독의 물로 간세포 회복까지

해독·회복간장약
리카바
● 표준순매가: 100정 / 27,000원
유한양행

많은 고문 시비가 있었는데, 단 한 건도 받아들여진 적이 없다고 합니다. 특히 작년 6월 부친 경찰서 성고문 사건시에는 우리가 잘 아는 바대로 법원이 성고문의 실체를 인정하면서도 변호사들이 낸 재정 신청을 기각시켰습니다. 이렇게 인권 옹호의 법과 제도가 있는데도 이것을 따르지 않으므로 휴지화해 버렸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인권 옹호의 법은 엄연히 있지만, 이를 앞장서 지켜야 하고 감시 감독해야 할 경찰과 검찰이 이 법이나 규정을, 그들 자신은 마치 법을 초월한 존재인 듯, 법을 무시하며 지키지 않았고, 또한 법의 존엄을 수호해야 할 사법부가 자신에게 맡겨진 인권 옹호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이 땅에는 고문의 관행처럼 되었고, 마침내 이번의 고문 처사의 비극을 남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참으로 심각합니다. 인권은 옹호하고 존중해야 할 공권력에 의하여 오히려 인권의 말할 수 없이 거둬들여 유린되고, 사람을 죽음에까지 이르게 하고 있습니다.

어아 합니다. 고문이 있는 우리는 민주사회도, 인간다운 사회도 이를 수 없습니다. 고문이 있는 곳에 선진국이 있을 수 없고, 뿌터라 국가 안보도 있을 수 없습니다. 고문은 실로 인간을 파괴하고, 사회를 파괴하고, 나라를 무너뜨리는 중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우리의 죄스러운 과거를 청산하고, 우리 자신의 다시 나아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진정 회개하고 속죄해야 합니다. 말로만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회개해야 합니다.

도스토예프스키의 작품 『죄와 벌』에 보면, 살인죄를 범한 주인공 로디온 라스콜리니코프에게 그를 사랑하는 창녀 소나는 「일어나서 곧장 네 거리로 가서 네가 다련한 땅의 모든 죄를 씻어내고, 그리고 사방은 세상을 향해서 절을 하면 서 나 너 살인죄를 범했다고 소리쳐야 해! 그러면 신은 나를 다시 살려주실 거야. 가서 그렇게 하겠다? 그렇게 하겠다? 말야?」라고 진정으로 참회할 것을 애리게 호소했습니다. 소나가 그 죄를 함께 아파하고 뒤우치는 마음으로 이 말을 하였습니다.

이것이 현실일 때 우리는 공권력 행사의 최고 책임을 지고 있는 이 정권의 도덕성의 대하고 깊은 의무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정권의 뿌리에 양심과 도덕이 도대체 있느냐? 아니면 이 정권의 뿌리에는 총칼의 힘뿐이냐? 하는 이 정권의 도덕성에 대한 회의가 근본적으로 야기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다시 국민인 우리에게 이런 정권을 그대로 따라야 하는지 않는지에 대한 중대한 양심 문제를 던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같은 불법의 자행에는 원칙적으로 「인본 자유」의 결여가 그 온상입니다. 세계 어느 나라에서 인본 자유가 없이 민주주의가 실현된 예가 있습니까? 이것은 물이 없는 곳에 물고기가 놀고, 공기가 없는 곳에 새가 난다는 이야기처럼 명백한 거짓일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현정권은 민주화를 하겠다면서 이른바 「합의 개헌」을 받아들인다면, 「인본 기본법」의 개폐를 검토하겠다고 하며, 합의 개헌이 되면 구속자 석방도 고려하겠다고 합니다. 조건부로

그래서 「우리 같이 하자. 그리고 함께 고통의 십자가를 짊어지자」라고 하였습니다. 때문에 로디온이 그 말을 따라 회개함으로 새 사람이 되었고, 소나는 이 참회와 고행의 길에 줄곧 함께 있어 주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런 참회가 필요한 것입니다. 박근혜 고문처사케 한 수사관은 물론이고, 그 밖의 경우에도 고문을 한 모든 수사관들, 그들의 일을 잘 알면서도 승인 내지 무인한 상황자들, 공권력을 행사하는 모든 이와 위정자들, 그리고 이런 사실이 우리나라 안에 있다면, 이것을 거둬들이면서도 지금까지 남의 일처럼 무관심하였던 우리 모두가 로디온과 같이 큰 네 거리에 가서 사방은 세상을 향하여, 곧 모든 것을 아시고 공의로우시면서도 자비로우신 하나님께 「우리도 살인죄를 범하였습니다」 「우리도 살인죄를 범하였습니다」라고 소리치며 진심으로 참회의 눈물을 흘려야 합니다.

오늘 우리 가슴에 이런 참회와 속죄의 눈물이 흐를 때, 그리고 하느님의 용서가 있을 때, 우리와 우리 사회는 비로소 구원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참

협의를 대상에 선거법이나 권력 구조 문제가 포함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른자유와 「사면부권」, 「구속자 석방」은 민주주의의 원리원칙인 인간 존중의 입장에서 볼 때, 무조건적이고 원천적인 선결 문제입니다. 묵인이나 간헐 이들이 합의 개헌을 위한 인질이 결코 될 수 없다는 것을 차체에 밝혀두고자 합니다.

저는 참으로 이 기회에 현정부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정부 스스로 공약한 바 없었지만, 진정으로 회개하기를 촉구합니다. 자체 내에 양심을 회복하고 인간성을 회복하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리하여 모든 것을 비우고, 오직 국민을 위해 봉사하면서 민주주의 길을 확실히 밟아 나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친애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모두 인간다운 삶과 그런 삶을 보장하는 정의로운 사회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고문과 같은 인권 유린, 하느님의 모습을 따라서 창조된 존엄한 인간의 대한 모든 중에도 모두 인 이런 행위는 차체에 참으로 건설되

으로 새 사람으로 태어나고, 우리 사회와 나라도 새롭게 태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럴 때에 이 땅은 다시는 고문이 없는 아름다운 나라가 될 것입니다.

꽃다운 젊은 나이로 원통하게 목숨을 빼앗긴 고 박정철관의 영전에 삼가 명복을 빌며, 자식을 잃고 애통해 하신 아버지 어머니, 그 형제들에게 깊은 애도의 마음을 전합니다. 이제 그의 희생이 우리의 정의로운 민주 회복의 도정에 승리의 분기점이 되고, 저력이 되어 줄 수 있기를 하느님께 간절히 기원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모진 고문을 통해 억울하게 현재 투옥 중에 있는 모든 양심인들의 석방을 바라면서 이 미사를 봉헌합니다. ●

민주주의의 뿌리가 있다

미국에서 두 번의 사람들과 이야기
신디퍼너노브·앤·김·2000년